

## 제 18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종교를 넘어 '너, 나 그리고 우리의 희망' 을 부르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9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성대하게 펼쳐졌다.

'너, 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에는 공동대표의장인 자승스님을 비롯해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서정기 유교 성균관장, 천주교 손용민 사무국장, 기독교 배인관 사무총장 등이 대표한 7대 종교 종교인과 일반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축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묵념으로 문을 열었다. 개막식에서 자승스님은 '국민과의 소통 공감을 넓히기 위해 준비한 종교문화축제가 세월호 유족의 아픔과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동안 종교계는 우리 사회 화합과 평화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왔다. 국민의 염원인 우리 사회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종단별로 준비한 체험행사에서 불교는 종이 연꽃 만들기, 단청 그리기, 원불교는 나의 경전 만들기, 천주교는 묵주 만들기, 기독교는 티셔츠 프린팅, 유교는 한복 바르게 입기, 전통서당 체험, 천도교는 태극기 그리기, 민족종교는 천연비누 만들기, 단풍잎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모든 종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장을 받아온 이들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됐다.

희망카페에서는 백혈병 아동의 치료비를 모금하는 캠페인이 열렸으며, 개그맨 송준근이 일일 바리스타로 참여해서 기부를 독려했다.

또한, 낮 동안에 진행된 각 종단의 축하 공연에서는 춘향전의 이별가, 흥보전의 박타는 대목 공연이 흥을 돋웠고, 원불교 한청복 교무의 성가, 정행스님의 '산은 산 물은 물이다', '내 맘의 갈등'의 찬불가는 관중에게 감명을 선사했다.

저녁 6시부터 진행된 희망콘서트에서는 불교, 가톨릭, 원불교 등 여성 종교인들의



모임인 '삼소회', 다문화 가정 자녀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 퓨전국악 '하나연', 아카펠라 '원더풀', 모래만화, 세인트폴 발레단, 비보이 '라스트포원'의 공연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삼

소회 회원들은 공연에 이어 기원문을 낭독하며 종교화합과 세계평화, 전쟁 중단을 호소했다.

종교문화축제는 1990년 미술제와 음악제로 시작했던 종교인들의 화합 모임이

1997년 제1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로 발전했고 제10회(2006년)부터는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로 개명되면서 일반시민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글: 편집부

### 템플스테이, 종교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스페인 국제회의에서 우수 사례 발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산티아고 델라 콤포스텔라에서 열린 '관광과 성지순례 국제회의'에 종교관광의 우수 사례로 참가, 템플스테이의 역사 및 운영현황, 프로그램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WTO와 스페인 관광청의 공동 주최로 처음 개최된 이번 국제회의는 관광 분야에서 종교가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관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종교 지도자, 관광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성지 순례 관광과 문화유산, 자연환경, 순례 관광의 지속성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9일, "순례관광의 지속성" 분과에서 종교 관광의 선도적 구실을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역사 및 운영현황, 프로그램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사업단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명법스님은 "전통사찰에 머물며 수행자의 일상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했다."고 템플스테이를 소개했다. 또한, 정신적 치유와 사회 통합 기여 부문에 관한 템플스테이의 성과를 공유하여 호평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템플스테이의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우영진 UN WTO 사무총장 특별 자문위원은 "종교 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초를 밝히고 문화와 관광, 종교계의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를 계기로 템플스테이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향후 템플스테이 시즌2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논의의 장에 적극 참석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www.kbuddhism.com



# 포교원, 불교대학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쓰시마(對馬島)에서 '불기 2558년도 불교대학 실무자 연수'를 가졌다. 불교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불교대학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화합을 다지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참가자들은 불교대학 교수진과 커리큘럼의 공유, 강의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PPT 자료 제공 등 불교대학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원 확대 및 중도 탈락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불교세가 약한 호남지역 불교대학의 실무자들은 "불교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연 1회라도 유명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여는 방안을 종단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릉불교대학은 "불교대학 활성화를 위

한 방편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염불반, 독경반, 사경반, 답사반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불교대학 출석률이 높아지는 등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조원 영암불교대학 운영위원은 "각 불교대학마다 진력을 다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간, 광역시도 간 불교대학의 위상과 역량이 다른 만큼 이를 줄여줄 수 있는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각 불교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서로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조계사불교대학을 비롯한 미국 LA 불교대학과 호주 시드니 한국불교대학 등 국내외 121곳의 불교대학에서 해마다 8,000여 명이 입학하고 5,500여 명이 졸업(수료 포함)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02-2011-1891

## 완주 송광사, 외국인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개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스님)는 완주 국가산업단지과 익산공단에 근무하는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9월 1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참선, 발우공양, 108배, 예불, 명상 등을 체험하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익혔다. 처음 송광사를 들어올 때는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처럼 만난 고국의 동료와 한국 절에서 하

룻밤을 지내며 그간 이국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말끔히 씻었다.

주지 법진스님은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는 물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며 "정기적으로 인근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송광사 [www.songgwangsa.or.kr](http://www.songgwangsa.or.kr)



## 세계적 임상심리학자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 고통 벗어나는 핵심은 자기 연민심과 지혜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이자 마음 챙김과 연민심 등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가 한국에 왔다. 1978년부터 불교 명상의 원리와 수행을 심리치료에 통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머 박사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명상심리 치료에 대한 불교적 처방을 제시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대개 자신을 비난하거나 몸을 괴롭힙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현상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 깨선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등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데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화살을 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라고 강조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핵심이 되는 이론과 실천 방법으로 연민심과 지혜를 들었다.

지혜가 생기려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 깊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고통 받는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심이 필요하다. 이런 자세로

'마음 챙김 훈련'을 적용해 내면을 본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양손을 겹쳐 가슴에 대고 심장의 온기를 느껴 보거나 자신에게 연민의 편지를 쓰라고 권유했다.

현재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 임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머 박사는 최근 2009년 5월 하버드 의과대학 명상 심리치료연구원 주최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진행된 2박 3일간의 국제 학술회의 발표 자료들을 수정·보완한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는 심리치료가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주제인 '지혜'와 '자비'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불교심리치료연구원장이며 거머 박사와 학문적 인연이 깊은 서광스님이 번역에 참여했다.

서광스님은 "이제 명상은 개인의 치료를 넘어서서 교육, 경제, 문화, 예술, 군사, 의학, 스포츠 등 우리 인간의 행복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반의 체계, 자연, 우주에 이르기까지 일체 생명, 무생물을 치유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힐링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며 불교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치료와 명상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일독(一讀)을 권했다.

자료제공\_ 학지사



## 벽안의 스님 죽비를 치다

"대학에서 불교를 만났습니다. 당시 삶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는데 동양의 선(禪)수행은 마음을 울렁이게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광주 무각사 템플스테이 수련관. 이곳에서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참선 명상교실이 열린다. 죽비를 치는 지도법사는 눈 푸른 이방인, 미국에서 온 경본(京本)스님이다.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경본스님은 교양과목으로 접한 불교입문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됐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던 일본 쟈 센터에서 선수행도 했다. 아예 전공을 종교학으로 바꿨다. 마침 한국에서 유학 온 선배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게 되었고, 무작정 한국으로 불교순례를 떠났다. 승보종찰 송광사에 들렀을 때 그곳이 오래된 마음의 고향임을 직감했다. 미국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출가의 뜻을 밝혔더니 대학교수였던 부모님이 격려해 줬다. 그리고 2009년, (전)포교원장 혜총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속가 나이 23살이었다.

경본스님의 정진은 남다르다. 2010년 38기 행자교육원 시절, 150여 명이 치른 5급 승가 고시에서 2등을 했다. 아직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불교에 대한 열정은 으뎠이었다. 강원을 마치고 지난 하안거에는 송광사 선방에 방부를 들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정진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천 년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본스님은 전남대 대학원에서 근본불교를 더 공부할 계획이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수행도 깊어진다는 생각에서이다.

글\_ 불교신문

#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농업학교 2016년 개교

## 학교명 '보리가람', 깨달음의 공간으로 피어나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불교계 지원이 미진했던 아프리카에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자 시작된 아프리카 학교 건립은 농업 기술을 주요 교과목으로 하여 전교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그간 학교 설립을 위한 현지 NGO 법인 신청, 학교설립 허가, 토지 소유권 등록 등 행정 처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전반적인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되며, 2015년 말 마무리 되어 2016년부터 학생들을 맞이하게 된다.

캠퍼스 4만 평의 학교부지에는 학년 당 60명씩 총 120명의 학생을 사용할 수 있는 6개의 교실과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양호실, 도서관, 식당, 강당, 매점, 공동 화장실, 경비실, 지부 사무실, 운동장이 지어질 계획이다. 또한, 전교생의 기숙 생활을 위해

남녀 기숙사 각각 1동씩과 교사 숙소가 마련되고,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대규모의 원예실습장과 가축실습장도 조성된다. 학교 이름은 '보리가람'으로 결정했는데 학생들에게 '깨달음의 공간'이 되어 학교 내의 가르침이 학생들과 탄자니아 사회 전체의 깨달음과 빈곤 퇴치로 이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담겼다.

아름다운동행은 기공식 이후 학교가 들어서게 될 탄자니아 경제수도 다루살람 데메케군에 어린이 독서 장려 지원 프로젝트 '토토의 꿈', 급식 지원 사업 '해피콘', 우물지원을 통한 식수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개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의 아프리카 학교 건립 동참에는 벽돌 한 장 1만 원, 책걸상 세트 5만 원, 땅 한 평 10만 원, 식수대 30만 원, 컴퓨터 한 대 100만 원, 교실 한 동 1,000만 원, 법당 건립 5,000만 원으로 동참 가능하다.

농협 301-0112-9859-51(아름다운동행) 문의 02-737-9595

▼ 탄자니아 농업학교 건물 예상 조감도



## 지구촌공생회, 미얀마에 솟아난 희망의 물줄기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가 미얀마 15번째 생명의 물탱크를 만달레이주(州) 냥우타운십 퓨투아 마을에 건립했다. 이로써 물 때문에 고통 받던 500여 명 마을 주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퓨투아 마을의 물 부족은 낮은 물탱크가 원인이었다. 1982년에 설치되어 30여년간 사용한 물탱크는 위생상태도 좋지 못했고, 균열이 생겨 더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1시간 30분을 걸어 언뜻에서 물을 길어 사용해야 했다.

퓨투아 마을을 돕기 위해 성불암 원혜

스님이 기금을 마련했고, 주민들도 자재를 운반하거나 건립 공사에 참여하는 등 힘을 보탤다. 모래도 주민들이 조달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주민들 스스로 물탱크를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교육을 진행했고, 물탱크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유지보수를 직접 실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다

미얀마 북부지역의 강수량은 미얀마 연평균 강수량의 1/10에서 1/5에 그쳐 해마다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푸석한 토양, 선인장조차 말라가고 있는 미얀마 만달레이주(州) 바간 지역의 풍경은 아프리카 반 건조 지대와 비슷하다. 물 부족은 전보다 더욱 심해져 지역 주민들이 조상부터 살아오던 고향을 등진 채 타향으로 떠나는 상황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2010년 파옥쉐핀 마을을 시작으로 미얀마 건조지대에 생명의 물탱크를 건립해 오고 있다.

후원문의 02-3409-0303



◀ (위)지구촌공생회가 건립한 15호 생명의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퓨투아 마을 주민 (아래)새로운 물탱크를 갈망하는 마을 주민이 물탱크 건립 추가 조사를 위해 방문한 시찰단을 환영하고 있다.



▲ (좌)공사에 참여한 주민 (우)방과 후 학습

## 로터스월드, 바이오가스 플랜트로 미얀마 농촌에 전기 공급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는 9월 18일 미얀마 서북부 지역 마그웨이주(州) 론하우 마을 사원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 완공식을 가졌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은 가족의 분뇨에서 나온 메탄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발전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는 농작물 재배에 생화학비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이롭다.

총 184세대 900여 주민이 농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론하우 마을은 미얀마의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동안 식수와 농업용수를 마을에 있는 2기의 우물과 빗물에 의존해 왔는데 오랜 가뭄 때문에 농작물 재배는 물론이고 생존에 필요한 물 확보도 어려워졌다.

로터스월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현지 단체와 마을 청년조직의 협력으로 1년간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을 추진해 왔다. 마을 주민 전체가 남녀노소가 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사에 참여했고, 지역 정부 또한 전기선 마련을 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마침내 지난 9월, 184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이 완공되었다. 또한, 하천과 마을을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여 각 가정에 식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이전 요금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을에 여러 변화가 생겼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을사원은 매일 밤 7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열고 있다.

한 주민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공사에 참가해 돌과 흙을 날랐다. 열심히 참여한 결과, 이렇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 밤에도 밝게 지낼 수 있게 되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없었을 때는 강에서 직접 물을 떠서 사용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전보다 반이나 싼값에 물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업은 현지의 청년조직과 연계하여 진행됨으로써 지역 청년 역량 강화에도 큰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로터스월드 www.lotusworld.or.kr

## 국제개발 활동가 워크숍 통해 노하우 공유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8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양평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워크숍 및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더프라이미스, 로터스월드, 엔지오 비유디, 워드아시아, 지구촌공생회, 한국YBA 등 총 7개 단체 18명의 국제활동가가 참여했으며, 토론을 통해 국제구호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정희 로터스월드 사무국장은 "각 단

체의 현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협력사업 연구에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불교계에는 18개 이상의 단체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후 지속적인 모임을 개최하는 한편, 더욱 많은 교계 국제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글\_ 편집부

# 창전주 무량스님과 함께한 태고사 20주년 행사

올 2월 초에 주지 취임을 한 후 줄곧 태고사 2014년 20주년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해외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있는 대전의 “아승지 사찰음식단”을 만난 것은 참으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은 불보살님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뭉친 보살 봉사단이었다.

한국의 큰 행사인 추석을 마치고 바로 9월 9일 LA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총 8명의 사찰음식단과 한국의 차 문화를 알리는 한은정 법무님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국에서 총 11명이 입국을 했다. 먼저 태고사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LA에서 장을 보았다. 현지 채소의 단위와 크기 및 질감이 다른 미국 채소를 보고 짐짓 놀래는 듯했다. 어렵사리 준비한 채소는 한국에서



(태고사 전경)

준비해온 양념들을 사용해 4일간 밤을 새워 준비한 결과 고향의 맛이 어린 음식으로 탄생했다.

9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행사는 시작되었다. 테하차피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여 한방 가득 모이니 50명을 넘었다. 먼 동양의 나라 한국에서 온 불교 문화인 차를 설명하고 시음까지 해보니 참 신기한 듯 어린아이처럼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관음전 앞에 준비된 야외극장으로 이동해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를 함께 보았다. 영어자막이 없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도 수행자의 송고한 모습에 빠져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 이가 스무 명이 훨씬 넘었다.

이번 행사의 클라이맥스인 14일의 해가 떴다. 새벽예불을 하면서 간접히 발원했다. 오늘 참석한 불자님 모두 건강하고 부처님 법에 좀 더 다가가는 법회가 되기를 축원했다. 8시가 넘어서부터 밀려온 불자들이 태고사를 가득 채웠다. 10시, 한국에서 온 비구니스님들이 먼저 신중기도로 도량을 정화하면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11시에 시작한 2부 행사가 10여 분쯤 지났을 때 법당이 웅성거렸다. 뜻밖에도 창전주 무량스님이 법회에 동참한 것이다. 스님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처음 풍수를 밟고 여기에 터를 잡은 사연을 말하면서 힘들고 함께 했던 1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이어 한국에서 보낸 수덕사 설정스님과 정범스님의 동영상



메시지가 태고사 법당을 가득 채웠다. 환희의 울먹임과 반가움으로 2부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원연합회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행사를 더욱 장엄했다. 잔칫날 맛있고 보기 좋은 음식을 맞이한 불자들은 더없이 행복한 모습이었다. 무량스님은 “둘이 먹다 하나가 천당에 가도 모를 만큼 맛있다.”고 감탄했다.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평화의 종을 울린 후 신도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라스베가스에서 온 한인 불자들은 도량 정리를 함께하고 하루 더 묵었다. 남가주, 북가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한인 불자들

▼ 창전주 무량스님과 함께한 한국에서 온 사찰음식단



과 멀리 한국에서 온 불자님들 그리고 테하차피 신문을 보고 새롭게 방문한 미국 불자들, 이 모든 분들이 태고사 20주년 행사를 빛내준 고마운 분들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덕사와 옥천암에서 보내준 후원금 중 남은 금액은 태고사 전기 불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함께 불사를 원하는 불자들은 태고사로 작은 정성을 보내 주면 부족한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원만한 회향에 부처님과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LA 태고사 주지 형전스님

## LA 한인 축제, 연등 만들기 등 불교문화체험 인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축제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LA 시내 코리타운에서 개막했다. 올해 41회째를 맞는 LA 한인축제는 서울국제공원 특설무대에서 ‘문화의 다양성: 함께 나누는 희망,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빈대떡, 떡볶이 씨앗 호떡, 닭강정 등 한국전통음식뿐만 아니라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부스가 준비된 먹거리 축제, 자동차에서부터 산삼, 화장품 등 각종 생활용품, 한국 지역농수산특산물,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그리고 광어, 전복, 김 등의 무료 시식행사로 푸짐한 살거리축제, LA 몸짱 대회,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 장수무대, 코리안 퍼레이드 다양한 행사가 가득한 불거리 축제, 민속놀이, 한방체험, 포토존, 탁본 뜨기 등 다양한 놀이와 강습을 제공한 체험의 축제 그리고 유니세프와 연계한 나눔의 축제 등이 풍성하게 펼쳐졌다. 특히 불교문화 체험 대형 부스와

LA 한국문화원의 ‘한류’ 정보 제공 코너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올해로 5년째 LA 한인축제에 참여한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의 불교문화 체험관은 그동안 매년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어들였다. 이날 외국인들과 한인 어린이들은 다양한 색상의 연등을 만들고 부채에 단청을 색칠하는 등 한국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즐거워했다.

한편 국제공원체육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혹했던 과거를 그린 만화전시회 ‘지지않는 꽃’이 열려 한인들은 물론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 명 서명 운동도 함께 펼쳐졌다.

LA 한인 축제는 미주 최대한인 거주 지역인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 지역 한인까지 참여하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 대잔치이다.

글 LA 고려사 주지 묘경스님



##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미국에서 첫 장엄등 제작 강습회 열어



미국 최초의 연등공예 강습회가 20일 부터 25일까지 뉴저지에서 열렸다. 미동부해외특별교구와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가 주최하고 미주 한국불교문화원(원장 김정광)이 주관한 이번 강습회는 한국 최고의 연등공예 전문가인 전영일 작가와 신석민 작가가 지도 강사로 나섰다. 지난 2012년 연등축제가 국가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이후 세계 속에 연등 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호주에 이어 올해 뉴욕 강습회가 처음 성사된 것이다.

첫날 행사엔 미동부해외교구 부교구장 지광스님(원각사 주지)과 총무국장 문종스님(불광선원), 김정광 불교문화원장, 연등회보존회 강문정 행정관이 자리한 가운데 뉴욕 뉴저지 일원의 불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지광스님은 축사에서 “연등은 외부의 어둠만이 아니라 증생의 번뇌 무명을 지혜로 밝힌다는 것을 상징한다.”면서 “체계적인 등 강습회가 뉴욕에서 처음 치러지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전통문화를 밝히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연등 강사 양성을 위한 이번 강습회에

서 불자들은 강의와 동영상 교육을 받고 연꽃 장식과 각각 창의력을 발휘한 다양한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원각사의 보현행 보살은 “생각보다 힘은 들지만, 훌륭한 작가님들로부터 연등 기술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되어 참 기쁘다.”고 말했다.

두 작가는 또한 22일부터 나흘간 뉴저지 보리사에서 신도들과 함께 범종과 연꽃 등 두 장엄등 수리작업을 정성껏 진행했다. 이 초대형 연등들은 매년 10월 뉴욕 맨해튼에서 펼쳐지는 코리안 퍼레이드에도 등장해 많은 인기를 끈 바 있다.

전영일 작가는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된 곳이 많이 생겼는데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간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한인들은 물론,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연등 제작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정광 미주불교문화원장은 “연등문화를 미주에 보급해서 맨해튼에서 연등 행렬도 펼치고 센트럴파크 잔디밭 한가운데서 전시도 하는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글 뉴욕, 뉴시스

# 경암스님 영결식, 조계종 미동부해외교구장으로 임수

지난 5월 입적한 해봉 경암스님(보림사 주지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8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조계종 미동부해외교구장으로 봉행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장례식장에서 열린 경암스님의 영결식에는 미동부해외특별교구를 대표해 부교구장인 지광스님(원각사 주지), 총무국장인 문종스님(불광선원 등 뉴욕거주 스님과 해인스님(메릴랜드 무량사 주지), 보림사 신도, 조지워싱턴 대학 B.N 해바종교학교수 등 미 주류 인사들도 자리한 가운데 임수됐다. 명종 타종과 함께 시작된 영결식은 상민스님의 삼귀의례, 청호스님의 반야심경 독경, 지광스님의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조시, 유가족 대표인 조카 문기성 씨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일진스님은 “스님은 쉼 새 없는 꿈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평화대학, 동양화대학, 불교대학 등의 설립 원력을 세우신 바 있다. 원적에 드신 해봉당 경암스님께서 남기신 수행자의 모습을 우리는 스님의 남기신 작품들을 통하여 선승의 깨달음의 경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지광스님은

“미국 수도 워싱턴 지역에 보림사가 영속되기를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경암스님의 상좌였던 해인스님은 17일 “경암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보림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발원했다.”며 “경암스님의 장례식이 끝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림사의 정상화를 위한 신도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경암스님 입적 후 중단됐던 일요일법회는 물론 3년 기도 불사를 통해 보림사를 다시 정상적인 사찰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해인스님은 현재 메릴랜드 무량사 주지로 있다.

한편, 미동부해외특별교구장 휘광스님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경암스님 사후에 보림사 처리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미동부교구의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는 “보림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해인스님과 유족 대표 측은 부처님의 화쟁의 지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지역 내 불교의 위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_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문종스님



## 뉴욕 불광선원 청년부, ‘아이스버킷 챌리지(얼음사워)’ 동참

뉴욕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 청년부 회장 강태욱, 부회장 박새늘, 김소영, 이지나 회원 등 4명은 8월 31일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리지’ 행사에 동참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미국 ALS 협회가 루게릭병으로 일컬어지는 ‘ALS’ 치료법 개발과 환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모금 운동이다. 캠페인 참여자는 얼음물을 끼얹은 후 세 명의 다음 도전자를 지목한다. 그에게 지목 받은 사람은 24시간 내에 인증샷을 남기거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 100달러를 ALS에 기부해야 한다. 캠페인은 연예인과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우리나라에서도 현빈 등 많은 스타가 동참했다.

문경 봉암사에서 가을 안거 수행 중이던 아이스버킷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햄프셔대학 교수 해민스님도 지난 8월 21일 각각 배우 김규리 씨로부터 도전자로 지목받았다. 현재 해민스님은

한국 불교계 스님들도 동참했다.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지난 8월 27일 40여 명의 신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스버킷 챌리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신도들은 “부처님처럼 고귀한 모든 존재들을 위해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힘내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심산스님의 릴레이 동참에 함께했다.

글\_ 편집부

## LA 태고사, 북가주 청년 불자모임 ‘TARA’ 첫 템플스테이

미국 LA 태고사는 노동절을 맞이해서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년 불자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북가주 청년 불자 모임 ‘TARA’의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입재식을 시작으로 발우 공양, 10년 후 자신에게 편지쓰기, 연꽃 만들기, 사우나, 참선, 예불, 다도 그리고 108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틀간 진행되었다. 특히 발우공양은 젊은 불자들에게는 충격이었다. 긴장을 해서 몇 번의 실수를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참가자들은 10년 후 자신에게 쓴 편지를 공개하지 않고 타임캡슐을 만들어 2024년 8월 말 다시 태고사에서 모여 함께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템플 좋은 행사들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고 밝혔다.

안정열 전 TARA 회장은 “그동안 TARA가 친목을 위한 행사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이 조금은 아쉬워 불교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며 “많은 청년 불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결 즐거운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태고사 홈페이지를 보고 참여한 남가주에 사는 김혜진 법우는 이렇게 사찰이 좋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좋은 줄 몰랐으면서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보였다.

태고사 주지 형전스님은 “태고사에서 몇 번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나 청년 불자들의 템플스테이는 처음이었다.”며 “앞으로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체

TARA는 앞으로도 청년 불자들을 위해 더 많은 불교관련 행사를 진행하거나 돕겠다고 밝혔으며, 참가자들은 사찰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참여하겠다고 환영했다.

문의 01-661-822-7776 / Taegosa@gmail.com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참석자 도리사 참배 사찰이 한민족 문화의 보고임을 실감

세계 각 지역의 한민족 여성 리더 및 차세대 여성 리더들이 신라 최초의 가람 도리사(주지 묘장스님)를 찾아 도량을 참배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주는 묘장스님의 설명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세웠다. 사찰이 한국문화의 보고임을 다시 상기하는 모습들이었다. 이런 열기는 스님께도 전해져 절로 설명에 힘이 들어가곤 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구미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등의 주최로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2014년 1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의 참석자들이 지역역사문화탐방의 일환으로 도리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묘장스님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한인 여성 리더들이 도리사를 참배하며 불교에 대해 큰 호기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오랜 전통의 향기로 가득한 천 년 고찰에서 고국의 옛 역사를 다시 음미한 참석자들은 조국에 대한 긍지로 뿌듯해했다. 특히 사찰만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하며 해외생활에서 몸이 밴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았다. 한편 사찰 곳곳에 간직된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전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Korea Women's International Network)는 정치, 경제, 행정, 법조, 언론,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민족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280여명, 해외 220여명 등 세계 36개국 500여명이 참가해서 ‘경력단절 예방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했다.

도리사 www.dorisa.or.kr

## 호주를 밝힌 울람바나(백중) 축제

**멜버른, 호주** - 전 세계의 불자들에게 8월은 울람바나 축제가 있는 중요한 달이다. 시드니, 브리즈베인, 애들레이드 등 호주 곳곳에서도 울람바나 축제가 열려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등의 불자들이 모여 생존한 부모들의 무사 안녕과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빌며 축제의 공덕을 회향했다. '부모의 날'이라고도 알려진 이 행사는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다.

"울람바나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멜버른의 킴 캉 사원에서 온 한 신도는 이렇게 울람바나의 의미를 소개했다. 킴 캉 사원의 주지 틱 누안 촌 스님은



"오늘은 또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보내는 날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멜버른에 자리한 쿠양 민 사원의 주지 틱 푸옥 탄 스님은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의미이며,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업을 정화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스님들이 안거를 마치고 영적인 힘이 가장 충만한 오늘 하안거 해제일이 이 일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윤양 사원은 하안거 해제법회, 지장보살법회, 울람바나 회향 대법회를 함께 묶어 3일 행사로 치른다. 신도들은 음식, 꽃, 의복, 그 외 귀중품들을 스님들 및 현재와 과거에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공양한다.

12년 동안 불교를 수행해온 쿠양 독 사원의 총무 스티브 로외는 울람바나에 처음 참여했을 때를 회상했다.

"몇 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울람바나에 참석했는데 불교에서 부모를 높이 존경하고 소중하게 대우하는 것을 보고 무척 감동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깊은 감동을 주신 사찰과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drew J. Williams,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9. 10]

## 마음 챙김으로 사회적 평화도 챙기자

**워싱턴 DC, 미국** - 마음 챙김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평화도 모색하기 위한 대회가 9월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깨어있는 나라 만들기'를 주제로 한 워싱턴 DC 마음챙김대회 'DC Mindfully'에는 실비아 부어스테인, 타라 브라취 등 명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원의원 팀 라이언도 참석해 '마음 챙김 행동주의란 무엇인가', '가정과 학교, 동네,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어떻게 폭력을 막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평화연합Peace Alliance의 창립 10주년과 유엔이 선포한 국제평화의 날(9월 21일)을 맞아 열리는 이 대회가 마음 챙김 수련



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데 멈추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홈페이지 <https://org.salsalabs.com>  
Buddhadharma [2014. 9. 12]

##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한 테러 위협에 긴장 고조

**자바, 인도네시아** -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이하 IS)와 인도네시아 내의 동조자들이 보로부두르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이후 보로부두르 사원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국제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IS는 8월 15일 페이스북에 "보로부두르는 이슬람의



전사 무자히딘에 의해 몰락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극단적인 성직자인 아마드 자이즈가 인도네시아에 불상을 세우려는 여러 계획을 비(非)이슬람적이라고 비난한 글도 함께 올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원 주위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대변인은 자바 중앙경찰청장이 IS의 위협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령했으며, 경찰은 어떤 사태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찰의 안전요원 및 군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9세기에 건설되었으며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BD Dipananda,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8. 28]

## 모스크바에 사찰 두 곳이 새로 건립된다

▼ 러시아의 대표적인 사찰 이불긴스킨 사원



**모스크바, 러시아** - 이번 가을 모스크바에 사찰 두 곳이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그중 한 사찰은 포크론나야 전쟁기념공원에 세워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희생된 불교도에게 봉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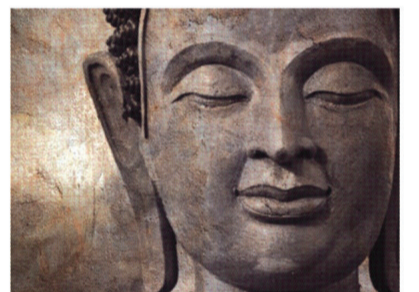
포크론나야 전쟁기념공원에는 이미 이슬람 모스크, 교회, 유대교 회당 등이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종교를 초월해 함께 싸운 장병들의 영혼을 기리고 있는데 늦게나마 불교사찰이 들어섬으로써 그동안의 묵은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공식적으로 건립 허가를 받아 부지도 불하받았으며 9월에 설계안이 통과된다. 모스크바 삼보불교센터의 타티아나 회장은 이 사찰 건립을 위한 후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토라드노예 지역에 세워질 두 번째 사찰 역시 러시아 정교 교회, 이슬람 모스크, 유대교 회당과 이웃해 자리 잡게 되는데 이곳 역시 후원금으로 건립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2층짜리 건물 건립에는 약 2억~2억5천 루블(미화 약 540만 달러~68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Moscow Times [2014. 8. 28]

## 새롭게 밝혀지는 타밀 나두의 불교 역사

**타밀 나두, 인도** - 타밀 나두 지역에서 불교가 흥성했음을 증명하는 석상과 동상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이 유물들은 또 고대불교유적지가 해상 혹은 육상 교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불교와 교역활동은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비단 이곳뿐 아니라 다른 무역중심지에서도 불교유적지가 발견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 무역로들을 통해 불교의 사상과 예술품이 인도 다른 지역과 아시아국가로 퍼져나갔다. 타밀 나두의 여러 지역에서 발굴되는 중국산, 동남아시아산 도자기와 유물들은 인도와 중국, 동남아시아 간의 긴밀했던 관계를 시사한다. 또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도 도자기들이 수입되었으며 스리랑카, 동남아시아의 순례객들이 인도의 타밀 나두, 안드라 프라데쉬 등의 불교성지로 몰려왔다.



한적한 마을 벌판에서 커다란 통을 파내던 중에 연화좌에 앉아 있는 1.03m 높이의 불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타밀 나두에서 발굴된 대부분 불상과 마찬가지로 광배를 갖추고 있던 것이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불상이 발견되었던 구덩이에서 중세시대 질그릇 조각들과 벽돌 등이 발견되어 이 불상이 있던 시기에 이곳에 사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he Hindu [2014. 9. 7]

## 틱 낫 한 스님의 새로운 반야심경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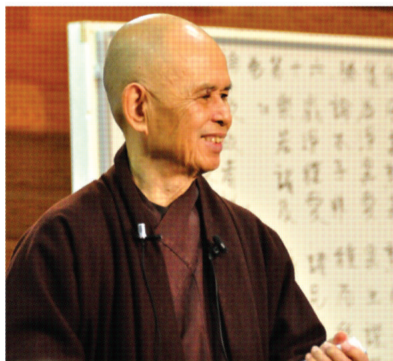
**플럼 빌리지, 프랑스** - 틱 낫 한 스님이 8월 11일 반야심경의 새로운 영어번역본을 발표했다. 제목은 "우리를 피안으로 인도하는 통찰 The Insight That Brings Us to the Other Shore"이다.

플럼 빌리지의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님은 "처음 반야심경을 편찬한 조사들은 용어의 사용이 능숙하거나 세심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천 년

동안 많은 부분이 잘못 이해됐습니니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번역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뒤에 바로 "실재도 없고, 실재 없음도 없으며 no being, no non-being"를 추가한 것이다. 스님은 이를 통해 실재도 없고 실재 없음도 없는 경계를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눈도 없고, 귀도 없으며, 코도 없고, 혀도 없으며..." 등등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번역본은 플럼 빌리지의 예불에 사용될 것이며 다음에 발간될 새 예경문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번역작업은 독일의 유럽응용불교학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Buddhadharma [2014. 9. 15]

# 도심에서 마음의 평화 찾는 수요 명상모임

**빙햄턴, 뉴욕(미국)**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메인스트리트 30번지에 있는 제1조 합교회에 빙햄턴불교그룹 회원들이 모인다. 18명의 회원들은 곁가부좌를 한 채 눈을 감고 명상에 든다. 천천히 내쉬는 숨소리와 거리의 차 소리, 그리고 교회 옆을 지나는 행인들의 소리가 간혹 들릴 뿐 주위는 고요하다.



“명상수행은 삶을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모임의 법사인 찰스 굿맨의 설명이다. “이 모임의 목적은 어떤 교리를 신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와 치유입니다.”

그는 명상은 지혜, 지계와 더불어 불교 수행의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며 불교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 자선, 비폭력, 환경에 대한 책임감 등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빙햄턴대학의 교수인 굿맨은 11년 전에 이 모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모임에서 티벳불교를 강의하긴 하지만 선불교 등 다른 전통의 수행자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굳이 불교신자일 필요도 없다.

모라 퇴우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은 뒤 불교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고통을 극복하는 불교적 방식을 시도해보고 있다. 이 모임을 꾸려나가는 타라 뱌사르는 돈과 물질주의에 지배받는 현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불교를 통해 얻고 있다고 한다. 메리 쿼드백과 캐롤린 블레이크는 제1조합교회의 신도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메리 쿼드백이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이 모임에 정해진 참가비나 회비는 없다. 그러나 복사비나 임대료 등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홈페이지 [www.meetup.com/binghamton-buddhist-meditation](http://www.meetup.com/binghamton-buddhist-meditation)

Connie McKinney, Press Connects [2014. 8. 29]

## 80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날란다 대학

**비하르, 인도** - 비하르주(州) 동부에 자리한 날란다 대학은 5세기 굽타왕조시대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학자와 사상가들이 이곳에 와서 학문을 연구하던 최고 지식의 불교 종합대학이었으나 1193년 터키 이슬람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캠퍼스는 원래의 대학이 있던 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의 443에이커의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바르왈은 설명했다. 캠퍼스 건설도 차질을 빚고 있다.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보도에 의하면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임시로 그 지역의 회의장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날란다 대학은 7개 단과대학과 과학, 철학, 영성, 사회학 등의 과정을 갖추게 된다. 새 날란다 대학 건립은 인도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8개국의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BBC [2014. 9. 1]

80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긴 했으나 빈약한 교직원과 학생 수 등으로 인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있었으나 15명만이 합격했다. 일본인 1명, 부탄인 1명, 나머지는 인도 출신이다. 가을학기에는 더 많은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총장 고파 사

## 부처님 모시니 범죄가 사라졌다

**오클랜드, 캘리포니아(미국)** - 조그만 행동 하나가 오클랜드 지역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오클랜드 11번 애비뉴와 19번가가 교차하는 지역의 호젓한 공터가 마약 거래와 불법 쓰레기 투기의 온상으로 우범지역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주민이 기발한 생각을 했다. 작은 불상을 하나 사서 그곳의 중간쯤에 갖다 놓은 것이다.

라 출신들이라 말도 나누지 않던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게 된 것이다. 시청이 이곳의 철거를 결정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기에 반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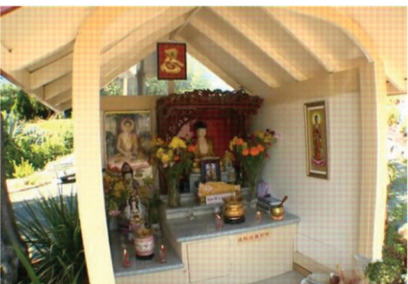
현재 이곳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여법한 자그마한 법당이 되었다. 매일 수십 명의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이 이 법당을 찾아온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법당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이 지역의 범죄와 병폐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다른 나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시(市)의 결정에 맞섰어요. 이 법당을 허물면 안 된다고, 이 법당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고 확실히 알려주었죠.” 이곳의 주민인 크리스틴 모이킬로의 말이다.

시(市)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거리의 법당을 계속 두기로 허락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법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법당은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법당은 우리 마을의 일부니까요.” 크리스틴은 설명했다.

처음 이곳에 불상을 가져다 놓은 주민이 불교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는 정말 놀랍기만 하다. 단지 마을을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CBS [2014. 9.17]

## 멜버른 최초 공식적인 승가 공양행사 열려

**멜버른, 호주** - 8월 23일 아침, 멜버른의 분주한 도심에서 진기한 행사가 열렸다. 쇼핑몰을 찾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사건은 멜버른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거행된 승가 공양행사였다. 쿠앙 민 사원의 주지 티 푸옥 탄 스님이 기획하고 진행한 이 행사는 시의회와 지역 상인협회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메리 쿼드백이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이 모임에 정해진 참가비나 회비는 없다. 그러나 복사비나 임대료 등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홈페이지 [www.meetup.com/binghamton-buddhist-meditation](http://www.meetup.com/binghamton-buddhist-meditation)

Connie McKinney, Press Connects [2014. 8. 29]

“이 행사를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탁발의 전통과 진정한 의미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우애와 겸양의 모범인 탁발수행을 통해 승가와 대중이 함

께 공덕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또 스님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재가자들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라고 티 푸옥 탄 스님은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얼마 전에 가짜 스님들이 시내에서 구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 때문입니다. 탁발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베트남, 태국, 중국, 티벳 불교의 스님들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몇몇 서구인들이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주최 측은 이 행사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전단지도 배포했다.

Andrew J. Williams,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9. 02]



## 소림사, 태권도 포함 국제무술대회 개최

**하남성, 중국** - 1500년 역사를 가진 소림사가 무술대회를 연다. 아직 상세한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지 쉬 용신 스님이 선 포럼 폐회식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가라데, 태권도, 쿵후의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 무술까지 포함한 대회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회를 위해 전 세계의 쿵후 수련자들이 초대되어 시범경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무술 간의 교류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쉬 스님은 이 대회는 소림사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림사는 매년 수천 명이 찾아오는 인기 명소이다. 방문객들은 무술시범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사찰 중의 하나인 서도 여전히 사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에 매료된다.

“소림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세계와의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불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소림사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소림사는 2012년부터 매년 전 세계에서 소림사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다.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8. 27]

쿵후의 탄생지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소림사의 역사에서 이처럼 다른 나라

# 다문화 인식 개선 및 홍보 위한 세계음식문화축제

2014년 9월 13일(토) 제26회 오산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4년 오산시 음식문화 한마음 큰잔치 행사가 열렸다. 본 행사는 오산시 주관으로 고장의 유명한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세계음식문화축제를 통해 지역의 다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를 목적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동등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특색 있는 행사이다.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법인 행복한이주민센터 : 상임대표 정호스님)의 주관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의 음식을 결혼이민자가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 시식 및 체험하도록 했다. 이날 본 행사에만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오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72-1335



## 한마음 운동회로 알콩달콩 돈독해진 다문화 가족들

2014년 제6회 알콩달콩 다문화가족 한마음 운동회가 9월 21일 10시부터 부항댐 산내들공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배우자, 자녀 등 다문화가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의 축하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알콩달콩 다문화가족 한마음 운동회는 듣직한 아빠의 시원한 미소와 예쁘고 상냥한 엄마의 환박웃음,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활기찬 환호성이 한껏 피어나는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애드벌룬 율기, 하늘을 날아라, 색깔판 뒤집기, 사랑의 바람개비 등 신나는 운동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즐거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월남치마 달리기, 아빠 프러포즈, 전체 줄다리기, 캄보디아 자조모임의 전통춤 등으로 분위기는 알콩달콩 돈독하게 무르익었다. 행운권 추첨과 우승팀 선정 등 다문화가족의 나라별 고국 문화를 알리고, 소통으로 하나 되



어 가족과 함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잔치 마당이었다.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진오스님은 “고향을 떠나와 한국 김천에서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 가족이 서로 이해하며 추억을 많이 만들어 힘들 때마다 추억을 거름 삼아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들의 알콩달콩 행복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김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439-8280

## 전주 (사)착한벗들, 2014 행복한 취업교실로 다문화의 꿈을 키우다

전북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스님)은 지난 8월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전주시 후원으로 2014 행복한 취업교실(이하 행복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교실에서는 섬유산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환경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봉제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취업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10월부터는 ITQ 한글자격시험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봉제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총 20명으로 이중 15명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는데, 그 중 교육성취도가 특히 높았던 베트남 출신의 부티짱 씨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막상 배워보니 아주 재미있고 보람도 느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배워서 봉제를 활용한 취업이나 부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착한벗들 회일스님은 “결혼이주여성들 중 많은 분들이 자녀의 육아나 교육을 위하여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언어나 기술이 부족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경제 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이 단순저임금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원만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후 봉제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여 이를 이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다꿈티움직업협동조합(가칭)’을 설립,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전북지역 불교계 중 유일하게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착한벗들이 사찰음식과 명상을 활용한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기반에 둔 협동조합 설립 등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기대해 본다. 전주 (사)착한벗들 063-236-6633



## 베트남 원오도랑 추석맞이 효도법회 개최

9월 7일 추석 연휴로 고향을 찾아 귀향한 인파로 도심이 한가한 가운데 동국대학교 중강당에는 베트남 이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효도법회를 봉행하기 위해서다.

멀리 고향을 떠난 이들이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추석날만큼은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지없다. 먼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시집오거나 일이나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아무리 조상과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고향

향을 찾아가기가 실제 형편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재한 베트남 원오도랑 서울지부에서는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효도법회’를 개최했다. 베트남이주민들은 목련존자의 효도 정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습하면서 모국과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의 기도를 올리고, 고향 사람들과 한국생활의 경험을 나누며 뜻 깊은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베트남 원오도랑 서울지부



제6회 이주민어울림한마당  
Happy World Together

11월 16일(일) 오산 시민실내체육관

8개국 아시아 이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 생수 등 물품 후원받습니다. 문의 02-720-7095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